

| 2022 역사한자 Conference

古漢字와 동아시아 古代

홍익재단

토론1

<食의 자형변천과 의미 범주 고찰>에 대한 토론문

허 선 영(안산대)

본 논문은 食자의 기원과 용법 그리고 食자의 의미 범주와 다양한 해석 등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더 나아가 食자의 자형 분석을 통해 ‘음식’과 ‘먹다’로 그 의미의 유형을 파악하면서, 의미 확장에 있어 어떠한 분야와 연관되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食자의 자형분석과 용례를 고찰하였는데, 갑골문의 자형을 통해 세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口’를 거꾸로 쓴 자형에 음식이 담긴 그릇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을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는 飮, 聖, 以 등의 자형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또 갑골문의 食자의 용례를 살펴보았는데, 제사, 시간, 표시, 일식, 월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갑골문 이후 食자의 자형 변천과 관련된 용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서주시기와 춘추전국시기를 지나면서 食자의 용례는 명사보다는 먹다의 동사개념이 많아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食자는 簋와 口로 이루어진 자형으로 정의하면서 음식을 먹는 동작으로 파생되었음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논지를 살펴보면 방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님의 연구 성과와 함께 연구의 노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食자에 중점을 두어 연관된 자형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연구내용을 확대하기 전에 자형에 대한 정리 작업이 선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食자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卽, 卽, 鄉의 자형이 동반 연구되는 과정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연구자님의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있습니다. 食과 簋와 飮 그리고 聖과 以의 자형의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卽, 卽, 鄉과의 연관성을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食자에 좀 더 집중하여 제반되는 자형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 연구논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食자와 연관된 자형을 논할 때 卽, 卽, 鄉에 대한 자형을 함께 연구하여 언급합니다. 食자의 의부와 연관된 자형에서 卽, 卽, 鄉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卽, 卽, 鄉은 밥을 먹는 모습을 갖춘 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食자가 飮과 같이 人이 간화되거나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卽, 卽, 鄉자형도 같은 견해로 봐야하는지요?

2. 聖자와 以자 자형에 대한 언급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食자는 입을 형상화한 것으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聖과 以를 제시하였습니다. 聖자형은

耳와 口를 강조하면서 갑골문에서는 사방의 큰 귀와 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문에서는 사람이 받돋움하고 선 모습을 의미하여, 뛰어난 청각을 가진 사람, 말을 상징하여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러한 사람을 성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以자형은 갑골문의 글자형태가 한사람이 보습(밭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데 쓰는 농기구)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뜬 글자로 후에는 보습과 사람이 분리되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둘의 글자가 모두 食자의 입을 표현하는 글자와 유사하다고 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한자발전 과정에서 口와 人을 생략하는 것은 왕왕 발생합니다. 때로는 증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以자는 고문자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자로 台자와 함께 연구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以자에서 人이 생략되는 과정을 언급하게 된다면 台자와의 연관성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飲자형은 고개를 숙여 항아리를 잡고 혀를 내밀어 마시는 모습을 본 뜬 글자입니다. 飲자가 食자의 本字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飲자와 𩚑, 𩚒, 𩚓 자의 관계에서 飲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체자로 보고 𩚔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飲자가 食자의 本字라는 것에 대한 견해와 이체자로 해석하는 𩚑, 𩚒, 𩚓 자형도 籀의 형태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中國古文字大系, 甲骨文獻集成》 第12,13冊에 〈𩚑, 食, 卽, 卽, 鄉, 以, 飲〉 등의 논문에서 食과 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으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론2

<허사의 발생과 변천에 대한 소학적 검토

- 《설문해자》, 《이아》를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문

문수정(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신원철 선생님의 「허사의 발생과 변천에 대한 소학적 검토 - 《설문해자》, 《이아》를 중심으로」는 허사의 발생과 변천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설문》, 《이아》 등에서 오늘날 허사로 사용되는 주요 글자(또는 단어)의 본의(本義) 또는 의미의 관계망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허사의 기능을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한 글이다.

《설문》, 《이아》 등에서 각 허사로 쓰이는 글자들이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고대 중국어에서 허사로 쓰이는 글자가 본래 어떤 뜻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의미가 허사로서의 기능(의미)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 또는 연결됐다고 착각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발표문의 내용 중 함께 논의해보고 싶었던 주요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다.

1) 발표문(3쪽)에 따르면, “전통적인 중국어 문법 분석 단위는 실사(實詞)와 허사(虛詞)로 나눌 수 있고, 글자의 實, 虛와 문장의 實, 虛는 다르다. 어떤 글자를 기준으로, 그 글자의 본의에 속하는 내용은 實, 인신이나 과생의 내용은 虛이고, 이들이 문장 내에 쓰이는 점에 있어 의미적으로 중요한 주어 또는 술어 등에 속하면 實, 기능을 담당하여 별도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虛이다” *그렇다면 허사의 변천 과정은 글자 층위의 일로 봐야 하는가, 문장 층위의 일로 봐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허사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 발표문에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크게 두 그룹의 예를 분석하였다. 그 중 첫 번째 예에서(발표문 3-4쪽), ‘以’는 《설문》에서 “用也. 从反巳. 賈侍中說, 己意已實也, 象形.”로 풀이했다. 발표문에서 언급된 단옥재 주석은 “賈侍中說, 己意已實也, 象形.”에 대한 내용이다. 단옥재는 《좌전》의 문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以’라고 한다.”(能左右之曰以.)를 인용하였고, 이 때 ‘之’에 해당하는 것은 초나라 군대다.¹⁾ 발표자께서는 단옥재의 주석 인용문과 그 구절의 사용 맥락을 제시한 후, 이 ‘以’가 “무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생된 의미로서 가능의 의미를 가지는 허사가 된 것”으로 분석하셨다.(발표문 4쪽) 그런데 ‘以’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어떤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도

1) “노나라 희공이 초나라 군대를 써서 제(齊) 나라를 정벌하여 곡(穀) 지방을 얻었다.”(公以楚師伐齊, 取穀.)(《춘추(春秋)》 희공(僖公) 26년)

구 삼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지 여쭙고 싶다. 어떤 허사의 기능과 관련하여, 도구를 나타내는 기능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능은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분리 가능한가?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그 적극적인 행위에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도구의 활용→행위의 완성]=[행위 완성의 가능성 충족]'이라는 점에서 분리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같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 '以'가 '~로써'라는 '도구'를 나타내는 기능에서 나아가, 무언가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면 추가적인 예시와 설명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의 설명이 보충된다면 “可”와 ‘以’의 결합에서 이 둘이 동의어”(발표문 4쪽)라고 하신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토론3

<甲骨卜辭에 보이는 商나라 ‘五方’개념에 대한 淺見>에 대한 토론문

빈 동 철(고려대)

갑골문, 청동기 명문,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 땅 속에서부터 나온 초 나라 죽간 등 고고학적 텍스트가 알려주는 정보는 중국과 구미의 연구자들에게 ‘고대 중국 다시 쓰기’를 촉발할 정도로 기존의 고대 중국 이해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고대 중국을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고대 중국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과 사상 방면에 우리의 논의를 좁혀보면, 출토된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일은 기껏해야 기존에 이미 고정된 철학사 서술에 매우 한정적으로 덧붙일 뿐이지, 새로운 시각에서 고대 중국의 사상사와 철학사를 조명하려는 시도는 내가 아는 한 한국의 동양철학계에서 발견하기 드문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문적 완고함과 함께 다양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소수의 연구자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조용준 선생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일반적 이해를 토대로, 현재는 더이상 논의할 필요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주제에 대하여, 이 연구는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시 주목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사실 ‘음양오행론’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철학사나 사상사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동양철학이 인간의 정치와 윤리 문제에 집중하는 특징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음양오행론이 기존 중국철학사의 서술에서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지 못한, 제한된 시각에 있다. 유가와 도가 같은 사상사 서술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흐름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도외시하여 진전된 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 전국 시대 초 나라 지역에서 출토된 문헌들은 고대 중국의 사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이 있다. 초 나라 죽간 자료의 면밀한 검토는 특히 음양오행론과 관련하여, 우리의 일반적 이해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에서 음양오행론을 조명할 것을 요청한다. 기원전 4세기에 사람들은 실재(reality)라는 토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현실과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인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힘으로서 ‘오행’과 ‘음양’은 이 기간에 매우 활발히 논의되었다. 오행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물질적 실체는 특별한 경향성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발표자가 논문 속에서 제시한 것처럼, 《尚書·洪範》도 어떤 특징적 성향과 연결된 각각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오행’은 단순히 물질적 요소 이상이다. 이것은 특별한 기능과 운동, 그리고 변화를 체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오행’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삶에 대한 기준

을 전제하고 있다. 바로 인간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그 자신의 경향성과 변화의 방식을 아는 것과 관련된다. 사물이 어떤 특별한 작용과 음양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의 출현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사유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자연 세계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자연 세계에 대응하는 인간으로서 제시한 음양오행론의 사유는 동시대에 출토된 고고학적 텍스트 자료와 전승된 문헌에서 더 진전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조용준 선생의 논문은 음양오행론의 발생과 관련하여 춘추전국 시기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골문과 청동기 명문. 그리고 《尚書》에서 그 연원을 소급하여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음양오행론의 맹아적 단계를 상나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이 연구는 전국 시대에 추연을 대표로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사유의 유행과 연계해서 논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분명히 음양오행론은 세계에 대한 그 시대의 새로운 이해 방식과 사유이고, 이것은 발표자가 주장하는 ‘오방’와 ‘오행’의 프로토타입으로 존재했던 갑골문의 ‘四方’과는 별개로 새로운 철학으로 형성된 것이다. 상대 갑골문에서 동서남북의 방향과 관련된 제사 행위가 ‘오방’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가? 발표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四方’의 방위가 ‘오방’ 관념의 맹아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가? 맹아라는 것은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데, 과연 네 가지 방향과 관련된 생각이 오행 이론의 사유에서 속에서 출현한, 지역 개념에 대한 주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오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작일까?

전승된 《尚書·洪範》 내용을 토대로 상대에 이미 오행 관념이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anachronistic)이다. 《尚書》 텍스트의 형성 시기 자체가 이미 가장 빠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서주 후반기에 형성되었다고 할 정도로 후대로 여겨진다. 심지어 《尚書·洪範》 편의 내용은 대략 기원전 4세기로 보기도 한다. 이 내용은 상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후대에 자신들의 기억을 먼 과거로 투영하고 있는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尚書》의 “홍범”과 “감서” 편에서 말한 오행의 ‘수화목금토’는 각 요소에 대한 작용과 역할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이 없다. 오행의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은 전국 시대의 산물이고 음양오행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때, 이것은 마치 공자가 ‘仁’이라는 기존의 단어를 자신의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하여 이전의 의미 사용과 다른 자신의 철학을 전개한 정도 만큼이나 새로운 사유의 출현이다.

음양오행론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이같이 제기한 질문자의 의문과 비판에 대하여, 전공자의 고견과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발표자의 이 논문을 발전시켜 음양오행론에 대한 심도 있는 철학적 이해와 해석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토론4

<출토자료로 본 商 遺民의 해체와 개편 - 서주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 에 대한 토론문




이 유 표(동북아역사재단)

상주(商周) 교체기, 중원의 서편에서 흥기한 주족(周族)이 ‘대읍상(大邑商)’을 멸망시킨 후, 많은 유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본 발표문은 그 유민들의 해체와 재편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씨족 단위로 수용 재편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기존과는 다른 사회조직을 구성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피력하셨는데, 저 또한 이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 제가 오독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장, ‘주원(周原)의 상계(商系) 귀족: 사장가(史牆家)와 백종가(伯冢家)’에서, 발표자께서는 1976년 부풍(扶風) 장백촌(莊白村) 1호 저장구덩이에서 발견된 103점의 청동예기를 정리하여 사장가, 곧 학계의 이른바 ‘미씨가족(微氏家族, 혹 微史家族)’의 상황을 정리하셨고, 1975년 장백촌에서 발견된 14점의 청동예기를 정리하여 백종가의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사가족’은 미자(微子) 계(啓), 그리고 ‘백종가’는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녹보(武庚祿父)와 연결시켜, 모두 상왕가(商王家)의 후손일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저 또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추론을 보면서, 두 가지 보충 설명 혹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말 주초 시기 ‘미(微)’로 고석(考釋) 되는 글자 가운데 족휘(族徽)로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량은 아주 적지만, 그 중에는 우리에게 비교적 유명한 ‘고죽명(孤竹銘)’ 청동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족 족휘와 미씨가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微鼎, 『명도』 208</p>	<p>微爵, 『명도』 6549</p>	<p>父丁孤竹壘 『명도』 13810</p>
<p>하남 안양 출토</p>	<p>모본만 전래</p>	<p>요녕 객좌 북동촌 출토</p>

다음으로, 백종가(伯冢家)가 상왕가의 후손일 가능성을 증명하시면서, 발표자께서는 록백(魯伯) 종(冢)이 자신의 부친을 ‘리왕(釐王)’이라 일컫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록백 종은 무경녹보와 관련된 상 왕실의 후예였을 것이라 추정하셨습니다. 여기서, ‘釐王’이라는 호칭에 주목해 보면, 이는 과거 왕국유(王國維)가 제기했던 ‘제후칭왕설(諸侯稱王說)’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례 말고도, ‘여왕(呂王)’, ‘측왕(夬王)’, ‘괴기왕(乖幾王)’ 등 여러 왕(王)이 서주 금문에 보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 선생님께서 제기하셨던 ‘방군(邦君)과 제후(諸侯)’라는 담론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방군’을 ‘제후’의 이칭(異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선생님께서는 이를 구분하셨습니다. 바로 ‘제후’는 주왕의 책명을 받은 직관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방군’ 같은 경우 ‘주왕’과 의례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있던 비주족 방국, 바로 ‘제후’가 관찰하고 척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투고문에 보이는 ‘釐王’과 연결시킨다면, 만약 서주시기 왕을 칭할 수 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들 ‘방군(邦君)’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